살아 있으면 불성은 자기에게 있어

☞ 27면에서 계속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오라는 날짜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병원에 있을 땐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타온 것을 집에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갈까말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가보라고 그러기에 도반과 함께 갔어요. 갔더니 또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꿈뜩꿈뜩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도 약도 안 먹을 거고 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약을 타가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분이 뭘 적을까 말까 적을까 말까 하다가 약을 안 주더군요. 그래서 도반이 나오면서 왜 약 안 타냐? 그래서 약 안주더라고,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안주더라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주인공을 믿으면서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진짜로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습에 의해서 자꾸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스님께 언젠가는 꼭 한번 여쭙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스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듯한 법문을 그 다음 법회 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처음 마음먹었던 것처럼 언젠가 스님께 기쁜 말씀을 드려서 웃는 모습을 꼭 한번 뵙고자 합니다. 그 날까지 법체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엎었다가 뒤쳤다가 할 때에 벌써 병은 움죽거린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얼른 생각을 하셔야 그게 그냥 없어지고 괜찮은 건데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죠. 허허허.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냥 믿으세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버리고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다 버리고 죽는데 이 마음이 버리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세생생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팔뚝 하나 쥐고 끌어 잡아 당겨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깐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행동하세요 그냥.

▲질문자3: 오늘도 만중생에게 대자대비를 베풀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스님을 뵈옵고 한동안 설사가 멎다가 다시 예전처럼 설사가 계속해서 한약, 양약을 같이 먹고 엊그제부터 설사가 많이 멎었는데 그동안 시험 준비하는 촉박감 속에서도 수시로 매일 관하고 있습니다. 팔신경불안, 신경예민, 결벽증 등은 10년이 넘게 계속된 것 같은데 관할려고만 하면 팔신경이 곤두솟아 마음이 불안해져 그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동안 과민성불안이 잘 낫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그것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너무 빠지고 졸려서 먹다 말다 해 오고 있으며 축농증은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해도 잘 낫지를 않고 의사도 특이체질이라 거의 해답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병의 원인이 영의 소행인 것을 알고 마음이 답답해 어디서 알아보니 산소파동 등으로 인한 조상 산바람 즉 조상 골전이 거세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저 또한 13년 동안의 방황과 각종 사고들 그리고 고통이 오랫동안 파란만장했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몸에 신을 받들고 계시고 제 몸에는 할머니와 동자승과 전쟁 때 객사한 청춘에 갔다는 남자가 신장으로 와 자꾸 제 앞길을 가로막는다며 대를 물려 박수가 돼야할 팔자랍니다. 가족들도 다 신의 제자 팔자랍니다. 제 모든 병들은 조상 천도를 잘 해주면은 자연스레 치유된다 하던데 지금 제가 몇 천만 원의 빚을 진 실업자지만은 조상천도를 해 주어 저와 가족들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게만 할 수만 있다면 비싼 카드 빚을 내서라도 천도재를 지내고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관하고 있지만은 마음 법을 공부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큰 가르침 주시길 원합니다.

▲스님: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날까지 간단한 걸 그렇게 가지고 애썼죠?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공생이에요. 공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자 공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하고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몸에서 세포 하나의 생명체도 떨어져 있는 게 없구나. 더불어서 같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산 사람과 둘이 아니게 똑같이 섬기세요, 마음으로. 잘 못했든지 잘 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모두가 공생으로 공심으로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자기 불성에 몽땅 놔야 불성과 하나돼

언행 · 걸음 하나도 인의롭고 부드럽게

그럼 죽은 영가들도 공용으로 움죽거릴 거고 당신의 마음이 공용으로 움죽거린다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공용으로 다 움죽거려서 어떤 거든지 걸림이 없어요. 새로 바꿔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또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 살아 나은 차원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공법을 쓰니까 그냥 공법대로 하나로 돌아가는 게 없이 그냥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법우는 살아요.

조상도 산사람 섬기듯

▲질문자3: 예, 이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저희들이 겪는 일 중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관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간까지도 마음자리에 맡기는 것 중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마음공부를 하는 것인지요? 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도 있기에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에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4년 내에 졸업하고 그 기간 내에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관하는 것하고 단지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될 때 주인공자리에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두 방법 중 어떤 게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그걸 생각으로 나누어서 나하고 믿는 자리하고 둘로 놓고 믿는다 이러지 말고 그냥,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뿌리와 그냥 붙어 있구나, 돌아가요 머리가? 붙어 있으니깐 무슨 믿는다 안 믿는다가 없이 그냥 죽어도 살아도 그걸 믿는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말을 해도 모르니깐 그냥 그렇게 해서 확 바꿔버리세요. 진짜 당신 정신계의,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계의 보이지 않고 들기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만은 당신은 정신계와 이 모습의 물질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 아니게 돌아가죠, 지금. 그러니깐 보이는 물질계, 보이는 내 모습은 정신계의 당신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끄달리지 말아요. 조상한테도 끄달리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끄달리지 말고요. 그래야 식구들도 살죠. 돈도 벌 수 없다면서 돈 들어갈 일을 왜 자꾸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연으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남을 대신해서도 아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고생을 했다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가 고생을 무릅쓰고 길렀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부모의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내 몸으로다가 우정 그렇게

마음 아닌 마음은 자유

하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부모들도 그렇고 죽은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발짝도 나가보지 않고도 세계를 들지 않아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쁘고 좋고를 짐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기면, 주인공이 하나 틀입니까? 이 허공에 꽉 찰래도 꽉 찰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길을 배우시면서 담담하게 가시면 여기 낙오되시는 분은, 하하하… 이 다음에 아이고, 한탄한다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한생각의 요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저께 산책을 하면서 산 이 쪽 저 쪽을 보니까 꽃이 만발을 했는데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데로 그냥 웃고 야단이에요. 아주 좋아서 말입니다. 향기가 그냥 들고 그래서 너무도 좋아 이렇게 내 손까지 벌였어요. 자꾸 와서 도니깐 받아들일 수 밖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 불이지, 부처는 불이에요. 불. 그래 불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버리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없이 그냥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모두가 자유스러우니까요.

내일 모레 울산지원에 점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점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하나 교육시켜서, 마음자리 공부시켜 놓는 거나 같아요. 점안하는 사람이 틀리면 그 부처님은 사불이 돼죠.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되면 부처님만 사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길 오고가는 사람들에게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부처님이래도 그냥 모셔 놓고 절하고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불이 되느냐, 사불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열 댓가지 된다는데 다 내 마음대로 점안식 할 때에 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 자기 자불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일체제불, 우주, 혹성, 지구 이런 데에도 구석구석이 염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넓은 것 같지만은 지구가 좁다고 생각하면은 좁쌀알갱이 만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면서도 요사스럽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닌 마음이래야 만이 요사스럽지 않다 이거죠.

우리 스님들은 더군다나 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말고 때에 따라선 껑충 뛰어서 그냥 올라가드록 한다면 이 생 죽기 전에 다 해결을 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애쓴다면 그건 무리죠. 그래서 화엄경하면, 금강경 해도 그렇고 전부 경을 한데 합쳐 놓고 공생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버려, 꽃이 참 예쁘죠? 그런데 시들면 그렇게 보기 싫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 버리죠,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잠시잠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잠시잠깐 이거 봤다가 저거 보게 잘 해 놨죠. 그러고 이거 들다가 저거 들게 잘 해 놨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게도 잘 해 놓고요, 길게 한가지 일만 하게 해 놨으면 못 살아요, 하하하.

그러고 사람이 한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 예전에 토굴에 있을 때의 얘기인데 토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대추를 몇 개 따다가 한 움큼 갖다 주는 거예요, 윤처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래 그거를 접시에 담아 놓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거 먹을 사이가 있나, 낮에 모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애 쓰니까 이것 갖다가 먹이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다 찌버렸어요. 하나씩 줬더니 그냥 쏟아지던 피도 딱 멎어지고,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던 애가 일어나서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 약을 먹고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모두들 성불들 하십시오. 그래서 모두요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싱긋 서로 웃고 지나게요.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지난 4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구정물을 아주 새 물로 해서 먹고 써라"

- 대행 큰스님 법어 중에서



동인한의원 원장 박세철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445-1 전화 : 053)422-4978